

[드라마 도깨비 - 내맘대로 연장 결말]

행복했던 날들

“아저씨, 오늘 날씨가 너무 좋지 않아요?”

은택이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초여름의 햇살이 그녀의 얼굴에 부드럽게 비치며 반짝였다. 김신은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보다가 느릿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렇게 좋으면 같이 산책이나 하죠. 오늘은 내가 하루 종일 따라다닐 테니까.”

그는 은택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은택은 장난스럽게 그의 손을 째 쥐었다.

“오늘은 절대 도망가지 마세요, 아저씨!”

“내가 언제 도망갔다고 그래?”

“저번에 쇼핑몰에서 내가 옷 고르던 중에 슬쩍 빠져나갔잖아요!”

김신은 어깨를 으쓱하며 장난기 넘치는 미소를 지었다.

둘은 공원에서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고, 벤치에 앉아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눴다. 김신은 불멸의 존재로서 지금 이 순간을 잃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저씨는 내가 이렇게 평범한 걸 좋아하는 거 신기하지 않아요? 당신은 워낙 특별한 사람이니까.”

은택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김신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지금 이 순간, 네가 웃는 모습이 나에겐 가장 특별해. 난 그냥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럼 제가 아저씨한테 아이를 낳아줄 수 있다면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은택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김신은 깜짝 놀라 멈칫했다.

“벌써부터 그런 생각을 해?”

“네, 저는 나이를 먹잖아요. 시간은 저한테 소중한다고요!”

김신은 순간 말이 막히며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떠나는 은택

김신이 집에 돌아왔을 때, 은택은 짐을 싸고 있었다. 여행 가방과 익숙한 붉은 목도리가 그녀의 손에 들려 있었다.

“무슨 일이야, 은택아?”

김신이 다가가며 물었다. 은탁은 고개를 숙이고 그의 눈을 피했다.

“아저씨, 나 잠시 혼자 있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혼자 있고 싶다니?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어?”

김신은 그녀의 손목을 붙잡으며 물었다. 은탁은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보았다.

“문제가 있어요, 아저씨. 나이가 드는 나와 늙지 않는 당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아이에 대한 문제도.”

은탁은 목소리를 낮췄다.

“은탁아, 그런 이유라면…”

김신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절망이 담겨 있었고, 은탁은 그 절망을 마주하는 것이 더욱 아팠다.

“알아요. 당신은 나를 사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 더 이상 당신 곁에서 이렇게 늙어가는 내 모습을 볼 자신이 없어요.”

그녀는 목도리를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아저씨, 나 조금만 멀리서 당신을 지켜볼게요. 그러니까 너무 미워하지 말아줘요.”

은탁을 오해한 김신

며칠 뒤, 김신은 같은 길을 다시 걷고 있었다. 그는 카페 앞을 지나며 창문 너머로 은탁과 그 남자를 다시 보게 되었다. 이번에는 더욱 다정한 분위기였다. 은탁은 남자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남자는 은탁에게 가까이 다가섰다.

그 장면을 보며 김신은 충격에 휩싸였다.

“이제 그녀는 나 없이도 행복한가?”

김신은 그 모습을 도저히 바라볼 수 없었다.

그는 깊은 절망 속에서 신과의 거래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그녀가 새롭게 사랑을 시작한 것을 오해한 김신은, 더 이상 그녀의 삶에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녀가 행복하다면 자신은 그저 그림자처럼 사라져도 좋다고 결심했다.

신과의 거래

그날 밤, 김신은 신을 찾아갔다. 어둠 속에서 그는 단호한 표정으로 신에게 말했다.

“나를 더 이상 그녀의 곁에서 맴돌지 않게 해줘. 나의 기억을 완전히 지워줘. 나 자신도 내가 누구였는지, 그녀와 어떤 인연이였는지 모르게 만들어줘.”

신은 김신의 눈을 바라보며 묵묵히 말했다.

“네가 그렇게까지 원한다면, 너의 기억을 완전히 없애주겠다. 하지만 그 대가로 넌 영원히 그녀를 다시 찾을 수 없을 거다. 그녀가 너를 기억하더라도, 넌 그녀를 절대 기억할 수 없어.”

김신은 잠시 침묵한 뒤,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 그녀가 행복하다면 나의 존재는 아무 의미 없어.”

신의 차가운 목소리가 어둠 속에 울려 퍼졌다.

“그럼 이제 너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새로운 삶의 시작

어느새 김신은 다시 눈을 떴다. 그는 낯선 방에 누워 있었다. 주변을 둘러보니, 익숙한 물건 하나 없이 모든 것이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이제 그는 인간이 되었고, 은탁과의 모든 기억은 말끔히 지워졌다. 그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만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그 이유조차 알 수 없었다.

김신은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출근 준비를 하며, 많은 사람들 속에 섞여 살아갔다. 그가 잃은 기억들은 그저 알 수 없는 공백으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그는 길을 걷다 창밖의 카페에서 낯익은 여성을 보았다. 그녀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있었고,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김신은 왜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려오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결심의 결과

그가 기억을 잃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은탁은 여전히 그를 찾고 있었다. 김신이 더 이상 자신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은탁의 가슴은 아팠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김신이 인간이 되어, 더 이상 불멸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녀는 오히려 그가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랐다.

하지만 은탁은 그저 그의 곁에 있고 싶었다. 그가 더 이상 자신을 기억하지 못해도, 그녀는 그의 웃음을 지켜보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그래서 은탁은 매일 같은 카페에 들러 김신을 기다렸다. 그가 나타날 때까지, 그리고 그가 그녀를 기억해 줄 때까지.

운명을 다시 찾다

시간이 흐르고, 김신은 여전히 공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직장에서 돌아와 집으로 들어선 어느 날, 문 앞에 놓인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낡은 붉은 목도리와 작은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사진을 들여다보자마자 김신의 가슴 속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감정이 몰려왔다. 목도리를 손끝으로 어루만지며 그는 느꼈다. 그리움과 슬픔, 그리고 알 수 없는 따뜻함이 그의 마음을 휘감았다.

그는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기억의 파편들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은탁과 함께 보냈던 모든 순간들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그의 머릿속에서 펼쳐졌다.

그녀의 웃음소리, 장난스럽게 던진 말들, 그리고 서로가 함께한 모든 순간들이 하나씩 떠오르며 그의 가슴 속을 울렸다. 그 순간 김신은 깨달았다. 은탁은 결코 그의 인생에서 사라질 수 없는 존재였음을. 그녀를 놓쳤다는 사실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었는지를.

“지은탁...”

그의 입술에서 작은 탄식처럼 그녀의 이름이 흘러나왔다. 더 이상 멈출 수 없었다. 김신은 사진을 꼭 쥐고 그 자리에서 뛰어나갔다. 그의 발걸음은 급했다. 그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녀가 어디에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그의 본능은 단 하나의 방향만을 가리키고 있었다.

하얀 나비의 인도

거리를 지나며 김신의 눈에 한 가지 장면만이 떠올랐다. 그 하얀 나비. 나비는 어딘가로 그를 인도하는 듯이, 그의 주위를 맴돌며 천천히 날아갔다. 나비의 흔적을 따라 발걸음을 옮기던 김신은 어느새 그녀가 있을 곳에 다다랐다.

그 길 끝에서 김신은 은탁을 발견했다. 그녀는 한 손에 커피 잔을 들고, 고요하게 서 있었다. 마치 김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김신의 심장은 멎을 듯이 뛰었다. 오랜 시간 동안 갈망했던 순간이 지금 눈앞에 있었다.

“지은탁”

김신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의 입에서 그녀의 이름이 흘러나오자, 은탁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믿기지 않는 듯한 표정이 담겨 있었고, 곧 눈물이 글썽이기 시작했다.

“아저씨…”

은택의 목소리도 떨렸다. 그녀는 몇 번이나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기억해줘서 고마워요. 나는… 나는 당신을 절대 잊을 수 없었어요.”

김신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를 와락 끌어안았다. 그의 팔에 은택이 닿는 순간, 그 모든 감정들이 폭발하듯 흘러나왔다. 그리움, 슬픔, 그리고 사랑.

“널 다시 찾았어.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잃을 뻔했어.”

김신의 목소리에는 눈물과 같은 감정이 실려 있었다. 그는 그녀를 더 껏 안으며 다짐했다. 그녀를 다시는 떠나보내지 않겠다는, 그녀 곁에서 이제부터는 매 순간을 지켜주겠다는 다짐. 은택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눈물을 흘렸다.

운명도 막지 못한 사랑, 그리고 쌍둥이의 탄생

은택과 김신의 결혼식

“신랑 김신, 신부 지은택, 두 분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평생 함께할 것을 맹세합니까?”

주례의 말에 은택은 밝은 미소로 대답했다.

“네, 맹세합니다!”

김신은 작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저도 맹세합니다… 평생 이렇게 당하면서 살겠습니다.”

하객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은택은 김신의 팔을 찌르며 말했다.

“아저씨, 왜 그런 말을 해요? 오늘만큼은 멋있게 해줘야죠!”

“넌 이미 나한테 빠졌잖아. 뭐 더 보여줄 필요 있어?”

김신이 장난스럽게 대답했다.

쌍둥이 임신을 알게 된 날

“아저씨, 큰일 났어요!”

은택이 병원에서 돌아와 말했다. 김신은 깜짝 놀라 물었다.

“무슨 일이야? 귀신을 또 봤어?”

“아니요, 쌍둥이에요!”

김신은 멍한 표정으로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가 말했다.

“쌍둥이… 둘이라고? 내가 이제 두 명의 딸바보가 되는 거야?”

은택은 피식 웃으며 말했다.

“아직 딸인지 아들인지 모르지만, 벌써부터 딸바보로 변한 거 보니 확실히 바보 맞네요.”

출산의 순간

“아저씨, 제발 안에 들어와서 같이 있어줘요!”

은택의 외침에 김신은 당황하며 분만실로 뛰어 들어갔다.

“손 좀 잡아줘요!”

김신은 은택의 손을 잡았다.

“은택아, 내 손이… 부서지겠는데…”

“지금 내 손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아저씨! 그냥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두 아이의 울음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다.

“건강하고 예쁜 딸 쌍둥이입니다!”

김신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이렇게 귀엽고 완벽하다니… 이건 확실히 나를 닮은 거야.”

은택은 피곤한 얼굴로 말했다.

“아저씨, 지금은 자랑할 때가 아니에요. 저한테도 좀 보여줘요!”

행복한 가족

쌍둥이가 태어난 후 집안은 완전히 전쟁터가 되었지만,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김신은 밤마다 쌍둥이를 재우며 노래를 불렀고, 은택은 그런 김신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아저씨, 노래 실력 꽤 늘었어요. 이참에 가수 데뷔 어때요?”

“나중에 애들한테 자랑할 거야. 엄마가 인정한 노래 실력이라고!”

김신이 웃으며 대답했다.

정원에서는 쌍둥이들이 하늘을 바라보며 웅얼거렸고, 김신은 아이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태어난 날은 내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날이야.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대단한 사람이야.”

은택은 문가에 기대어 그 장면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저씨, 이렇게 멋진 모습은 나중에 기록으로 남겨야겠어요. 팬클럽도 만들어줄까요?”

“그래, 팬클럽도 좋지만, 지금 너랑 우리 아이들만 있으면 완벽해.”

그들의 웃음소리가 밤하늘로 퍼졌고, 그 사랑은 앞으로도 영원히 이어질 것임을 모두가 알 수 있었다.